〈電子工業 篇〉

先導産業으로서의 基盤다져
部品, 輕薄短小化 흐름에 技術革新 期待

金 顯 泰

韓國電子工業協同組合 專務理事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送旧迎新의 時點에서 느끼는 感懷가 깊지 않을리 없겠으나 1984年은 우리나라 電子工業이 새로운 도약의 轉換期를 맞이하여 여러分野에서 많은 可能性과 成長潛在力을 키울 수 있었다는 點에서 매우 鼓舞的인 同時에 바탕을 더욱 다지고 다져 基盤構築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다. 또한 今年 한해는 컬러TV의 對美輸出 덤핑判定을 둘러싸고 유난히도 길고 긴 通商交涉이 이어지고 있어 業界 全体 로서도 緊張을 늦추지 못한 한해가 되었으며 國內業界로서는 成長을 위한 가혹한 단련이 契機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1984年은 電子工業 전체생산이 約 70億弗을 초과할 展望이며 輸出 또한 44~45億弗선에 다다름으로써 中樞産業의 위치를 더욱 確固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電子工業의 先導産業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더욱 늘어날 機電一体化, 情報産業化 추세의 加速化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電子化 추세의 강화는 電氣와 電子의 限界를 더욱 區分하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兩者의 結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맞추어 電子部品産業도 輕薄短小化의 흐름에 좇아가며 製品의 技術革新을 先導하기 위하여 많은 開發努力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84年의 業界 全体의 生産 輸出 동태등 흐름과 몇가지 特徵的인 사항과 85年의 展望등을 간추려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産業用電子機器의 比重 높아져

우리나라 電子工業 構造는 최근 들어와 高附加價値 製品인 産業用 電子機器가 매우 높은 比重을 차지하여 지난 81年 전체 생산 가운데 産業用이 13%를 차지하였으나 82年은 16%, 83年은 17%, 84年 上半期는 17%로서 웨이트가 높아져 構造 高度化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것은 최근들어 급속한 伸張勢를 보이고 있는 퍼스컴 통신기기, 코드리스 폰 등의 增加가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電子工業 構造 高度化를 위하여 벌이고 있는 政策支援과 業界의 기술수준 향상과 海外市場 需要가 맞아 떨어진 結果로서 아직도 先進國 美, 日에 比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욱 많은 開發努力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電子部品 開發支援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開發速度를 높여 갈 것으로 생각된다.

2. 輕薄短小化의 경향 두드러져

最近의 電子製品 크기나 디자인등은 아주 컴팩트化 되고 소위 輕薄短小化의 경향을 두려드지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電子部品의 칩(Chip)化, 블록化, 유니트化의 加速化에 따라 高精密化, 輕量化,

小形化가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은 스페이스에 높은 性能을 實裝化할 수 있으므로 적어지고 가벼워져도 성능면에서는 훨씬 優秀한 컬러TV 오디오製品, 카아폰등이 出現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今年은 家電3社의 製品이 더욱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各種 製品을 開發하여 내었고 消費者의 기호와 취향을 이끌어 갔다는 點에서 높은 評價를 받을만 하다고 하겠다. 또한 今年 下半期에는 家電3個社外 東原電子등에서도 오디오機器의 革命이라고 일컬어지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Compact Disc Player)를 約50萬원선에서 販賣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本格的인 컴팩트 디스크時代의 序幕이 올랐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핵자기 공명장치, 카아폰등 技術集約型상품이 잇달아 登場함으로써 우리 生活 깊숙히 電子製品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美·日등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미디어 製品에 있어서도 一部업체의 DBS (Direct Broadcasting Station)관련기기의 出荷등은 앞으로 發展의 가능성을 엿보였다는 點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3. 中小企業 領域確保 문제 대두

우리나라 電子工業이 점차 高度化 되어감에 따라 大企業에 의하여 中小企業 領域과 마찰을 불러 일으킨 事例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大企業 측면에서 보면 製品 高度化에 따라 필요한 部品, 原資材의 確保에 문제가 있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電子工業의 規模나 量의 擴大로서 單位部品의 物量規模가 커짐으로써 需給面에서 충분한 企業單位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새로운 市場을 노려 參與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듯 하다. 그러므로 필생의 사업으로 한가지 部品生產에 전념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技術의 定着, 深化를 기하여 한次元 높은 技術段階로 옮아 가려고 힘쓰고 있는 中小企業者에게는 대단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資金, 組織, 人力등 면에서 비교가 안되는 大企業이 일거에 市場장악을 기도한다면 버틸힘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온갖 어려움속에서 겨우 확보하고 있는 專門技術 人力도 大企業의 스카우트 작전에 휘말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더욱 설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볼때 日本이나 台灣의 例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日本의 系列化, 專門化가 저렇게 굳건히 자리잡기까지에는 물론 적지않은 試行錯誤를 거듭하였겠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成功動因은 相互間의 깊은 信賴와 協同化에 있다고 볼때 무엇이나 짧은 時間에 한꺼번에 解決은 안된다고 하여도 하루빨리 信賴와 協同化의 바탕이 制度的인 테두리안에서 뿌리 깊이 定着化되도록 相互間의 더많은 努力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風土造成에 미력이나마 協力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台灣이 4萬餘個의 中小企業 힘이 뭉쳐 우리보다 항상 많은 輸出을 하고 있다는 事實에 대하여도 보다 根源的인데에 눈을 돌려 硏究하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미래의 이익 즉 根源的인 이익을 위해 對話를 통한 協力体制를 더욱 굳건히 다져 尖端技術分野의 電子產業이 알차게 結實을 맺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時點으로 생각된다.

4. 높아가는 퍼스컴 熱氣

요즘 퍼스컴의 熱氣는 우리들 안방에까지 찾아들어 이제 웬만한 家庭에서는 中高生들에 의하여 조작되는 퍼스컴의 作動과 곳곳의 컴퓨터 硏修훈련원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業界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8비트, 16비트 超小型 퍼스컴까지 많은 모델을 出荷하였고 兩面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의 開發市販으로 記憶容量의 대폭 擴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MXS기종의 開發成功으로 호환성 면에서도 크나큰 發展을 기하고 있으며, 下半期 들어 많은 量의 輸出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소프트웨어의 開發로서 이러한 컴퓨터 마인드가 크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5. 半導体 品貴現象

84年 上半期를 볼때 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事實이 急速한 수출물량에 따라가지 못하여 일어난 半導体 品貴現象을 들 수 있다. 따라서 輸出오더를 받아 놓고도 IC LSI등 半導体 製品을 入手하지 못하여 納期를 지연시키고 주문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나 國內 半導体 메이커의 供給能力 擴大와 日本等 해외 공급선 물량확대로 下半期부터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全般的인 수출주문 정체현상까지 겹쳐 일부는 과잉공급으로까지 바뀌고 있다. 이밖에도 83年中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던 코드리이스폰의 周波數 変更과 新機種 개발등은 지연관계로 줄이고자 한다.

6. 85年의 展望

今年 12月 중순으로 예정되고 있는 컬러TV 對美 덤핑 最終 判定 여부에 따라 來年度 수출물량이 상당한 영향을 받겠으나 최근 2~3年間과 같은 急速한 對美 컬러TV수출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展望되고 85年 3月이후 VTR 輸出이 價格競爭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作用할 수 있느냐등이 最大의 關鍵이 되겠으나 VTR의 경우 EC共同市場은 벌써 수입 쿼터 책정등으로 規制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來年을 밝은 마음만으로 내다 볼 수 없으며 미국의 景氣回復勢가 지속될른지도 의문스럽다 하겠다. 따라서 對內外의 어려운 與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혹할 만큼 强度높은 生產性 向上 運動과 品質高級化, 經營合理化등에 注力하면서 品種과 輸出對象의 多変化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겠다.

*

• 協會消息 •

第9回 國內產業視察 盛了

11. 5~7, 中堅技術會員 26名참가

金星電線등 4個優秀產業施設 견학

本協會 주최 第9回 國內產業視察이 지난 11月5日부터 7일까지의 2泊3日에 걸쳐 本協會 特別會員 業·團体의 重鎭들과 中堅技師會員등 26名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經營實態가 우수한 國內產業施設의 見學과 現地 세미나를 가짐으로써 會員의 技術開發과 相互紐帶强化를 도모하기위한 이번 視察은 金光錫 事務局長을 團長으로 하여 亀尾의 金星電線, 昌原의 韓國電氣通信研究所, 韓國重工業, 麗川의 湖南精油, 湖南에틸렌등 5個業体를 견학했는데 金星電線에서는 견학과 함께 現地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전기통신연구소에서 姜承勳 電氣開發部長으로부터 短絡試驗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시찰단